



세계적인 방재기관으로 도약하기를

박정훈 /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우리 방재시험연구원이 금년 4월로 개원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연구원이 성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손해보험업계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등 정부부처는 물론, 선박용 기자재 및 방화용품 제조업체, 그리고 학계 등 많은 분들이 20여 성상을 한결같이 성원해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지면을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온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구원은 방재기술에 대한 시험연구 활동이 미약했던 시절인 1986년 4월에 국가 방재기술 향상과 보험산업의 과학화를 위해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설립한 방재분야 최초의 민간 시험연구기관입니다.

지난 세월 연구원은 국내적으로는 건축자재 및 방화용품의 성능시험, FILK품질인증, 방재신기술연구, 그리고 방재기술교육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손해보험 위험관리기술의 향상은 물론 화재 없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국외적으로도 미국 FMRC 및 일본건재시험센터, 중국 상해소방연구소 등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방재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적 과제에 일조하기 위해 방재 및 위

험관리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에도 힘써왔습니다. 기업의 안전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방재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형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책무에 부응해왔던 것입니다.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오랜 숙원이었던 방재기술 교육관을 개원 20주년에 맞춰 건립하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신 실험·실습설비를 구비한 교육관 마련을 계기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관리자들의 니즈에 부응하는 방재기술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연구원은 세계적인 방재시험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이룩하였다고 믿습니다. 본인이 협회에 부담한 이래 지난 3년간 최신 시험장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실무능력을 갖춘 젊은 박사급 인력도 많이 보강하였습니다.

절차탁마(切磋琢磨)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옥이나 돌을 갈고 닦아 빛을 낸다는 뜻입니다. 많은 노하우를 가진 기존 연구원들과 새로운 연구진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방재기술 분야의 블루오션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연구원이 구미 선진국의 방재기관인 UL, FMRC 및 VdS 등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적인 방재기관으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방재시험연구원의 개원 20주년을 경축하며 여러분의 무한한 도전을 기대합니다.